

그림형제의 「룸펠슈틸츠헨」 연구*

손 은 주 (목원대)

I. 서 론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 민담들의 형성과 발전과정, 의미와 모티브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부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이야기 Kinder- und Hausmärchen』(이하 KHM으로 약칭함)에 제 55번으로 수록된 「룸펠슈틸츠헨 Rumpelstilzchen」으로서, ‘AT 500: 조력자의 이름’ 유형¹⁾에 속한다.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자기 딸이 짚으로 황금 실을 짓는다고 허풍을 떠다. 지나가던 왕이 그의 딸을 왕궁으로 데려가 방 안 가득 쌓인 짚을 금실로 자아 내라고 명한다. 도리 없이 울고 있는 처녀 앞에 난쟁이가 나타나 금실을 자아 주고 처녀는 왕비가 된다. 일 년 후 난쟁이가 찾아와 왕비가 낳은 아이를 요구 하면서 사흘 안에 자기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다. 왕비는 마지막 날 간신히 난쟁이의 이름을 알아내고 위협에서 해방된다.²⁾ 「룸펠슈틸츠헨」은 이 유형 민담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실자기, 난쟁이의 도움과 협박, 이름 맞추기 모티브를 모두 지닌, 가장 널리 알려진 판본이다. 이 유형의 민담은 독일어권을 비롯한 게르만어권(영국, 북유럽)에 많은 판본이 채

* 이 논문은 2013년도 목원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AT는 세계 각국의 설화를 다수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Antti Aarne(핀란드)가 개발하고(1910) Stith Thompson(미국)이 완성한(1961) 설화분류체계의 약어이다. 『Types of the Folktale』이라는 제목의 저서로 출판되었다.
- 2) 본문에서 인용하는 텍스트는 KHM의 최종판(1857)이며, ‘참고문헌’에서 ‘Brüder Grimm(1980)’으로 표기하고, 본문에서는 ‘Grimm 1980, 쪽수’ 혹은 ‘KHM 수록번호’로 표기함. KHM 초고(1810)와 초판(1812)은 ‘참고문헌’에서 ‘Brüder Grimm(1975)’로 표기하고 본문에서는 ‘Grimm 1975, 쪽수’로 표기함.

록되어 있다. 동유럽, 남유럽에서는 독일어권과 인접한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만 소수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슬라브어권에는 전승이 거의 없다.³⁾ 따라서 학자들은 이 유형의 이야기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게르만어권에서 형성되어, 라틴어권, 슬라브어권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본다.(Leyen 1964, 53)

본 논문에서는 「롬펠슈틸츠헨」 유형의 이본들을 비교하면서 이 민담의 주요 모티브와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⁴⁾

II. 이야기의 발단

「롬펠슈틸츠헨」 이야기의 발단은 아버지의 허세이다. 딸이 지푸라기로 황금 실을 잣는다는 아버지의 허풍 때문에 처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왕궁에서 목숨 걸린 실잠기 시험을 받게 된다. 이 유형의 판본에서 아버지의 거짓말이 발단이 되는 것은 「롬펠슈틸츠헨」이 유일하다.⁵⁾ 다른 판본에서는 대체로

3) Bolt/Polívka 1913, Bd. I, 490-498; Leyen 1933, 19 참조.

- 독일어권: Berlewit, Doppeltürk, Felixe, Velefränzchen, Flederflit, Friemel Frumpenstiel, Grumpilstiza, Hahnenkikerle, Hans-Öfeli-Chächeli, Hipche, Hopfenhütl, Holzrührlein-Bonneführlein, Hoppentienchen, Horlewip, Kolerberabritschl, Kruzimugeli, Kugerl, Nägendümer, Popemannl, Purziniגעle, Rumpertrum Siperdintl, Springhunderl, Tarandolo, Waldkügele, Winterköbl, Ziligackerl, Zirkzirk. Zistel im Körbel
- 영어권: Tom Tit Tot, Titty Tod, Gnarwyna-throat, Whuppity Stoorie, Terrytop, Peerie Fool, Penelop, Silly go Dwt Warwyn-a-throat(영국); Rompetailtailskin(미국), Tambutoe(아프로 아메리카), Even-Trot, Trit a Trot(아일랜드).
- 기타 게르만어권: Trillevip(덴마크), Pmpelicurius Titteliture(스웨덴), Vippentur, Gilitrutt(아이슬란드), Reelsteltje, Kwiselotje, Pier Wier Wetz(네델란드).
- 프랑스어권: Ricdin-Ricdon, Furti-Furton, Racapet-Robiquet, Ricabert-Ricabon, Dick-et-Don, Rodomont, Marie Kirikitoun(바스크지방).
- 이탈리아: Tarandandò, Zorobubu.
- 기타 지역: Tuttritulì(핀란드), Kinkach Martinko(슬라브).

4) 민담 텍스트의 주요 출처는 <http://www.pitt.edu/~dash/type0500.html#doubleturk>이다. 「롬펠슈틸츠헨」, 「실 잣는 세 여인 Die drei Spinnerinnen」(KHM 15), 「릭땡-릭땡 Ricdin-Ricdon」의 출처는 뒷장의 ‘참고문헌’란에 소개함.

어머니의 거짓말이 발단을 이루며, 어머니는 대체로 가난한 농가의 아낙이다.⁶⁾ 아버지나 어머니의등장이 없는 판본도 많다. 그림형제의 KHM 자필 원고(1810)에서도 부모의등장이 없다. 난쟁이가 여인의 실자기를 도와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여주인공의 속성은 판본에 따라 다양하다. 「롬펠슈틸츠헨」에서는 여주인공의 속성에 대해 설명이 없지만, 다수의 판본에서는 여주인공이 게으름뱅이 처녀이고 이를 창피하게 여긴 어머니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다. 드물지만 여주인공이 먹보 처녀인 판본(「툼티트 Tom Tit Tot」, 「타란단도 Tarandando」), 부지런한 살림꾼 여인(「와르윈어스롯 Warwyn-a- throat」), 과부(「후피티 스투리 Whuppity Stoorie」), 공주(「피리 폴 Peerie Fool」)인 판본도 있다.

III. 실자기 과제

III.1. 여성의 천직(天職)으로서 실자기

「롬펠슈틸츠헨」을 비롯한 대부분의 판본에서 여주인공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자기이다.⁷⁾ KHM의 여러 민담에서는 실자기 모티브가 빈번히 등장한다.⁸⁾

-
- 5) 아버지의 허세 - 왕의 탐욕 - 난쟁이 남자의 협박으로 이어지는 「롬펠슈틸츠헨」 이야기를 페미니스트들은 아버지, 남편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억압과 횡포의 역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세가 사건의 발단을 이루는 판본은 「롬펠슈틸츠헨」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 6) 「릭벵-릭둥」에서는 농부 여인이 실자기를 잘 못하는 딸을 질책한다. 지나가던 왕자가 연유를 묻자 여인이 당혹하여 둘러댄다. 가난해서 아파를 살 돈이 없는데 딸이 밤낮 실 갖는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툼 텃 톳」에서는 집안일은 많고 빵 다섯 개를 한 자리에서 먹어 치워버린 먹보 딸을 한탄하는 노래를 하던 어머니가 노래 내용을 묻는 왕에게 딸이 하루에 다섯 소쿠리의 실을 찾는다고 둘러댄다. 「실 갖는 세 여인」에서는 실자기를 안 한다고 어머니가 딸을 때린다. 지나가던 왕비가 연유를 묻자 창피해진 어머니가 딸이 쉴 틈 없이 실자기만 해서 벌을 주고 있다고 둘러댄다.

우리나라의 설화에도 실짓기 모티브가 적지 않게 나온다.⁹⁾ 실짓기나 길쌈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천직이었던 생활사적 배경을 보여준다.(Bolte/Polívka 1913, Bd. 1, 491) 동서를 막론하고 옛 여인들은 직조 방에서 밤 새워 실을 자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노래를 불렀다. 견우직녀(牽牛織女) 설화의 제목은 소를 몰아 밭을 가는 남성의 본업과 실을 짓는 여성의 본업을 보여준다. 그리스 신화에서 실짓기 솜씨를 자랑하다가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을 사 영원히 실에 매달려 사는 거미가 되어버린 아라크네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도 신화시대부터 형성된 여성의 실짓기 과업을 확인할 수 있다. 길쌈이 옛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제였듯이, 그리스 신화와 북구 신화의 세 여신들이 운명의 베를 짜는 직조 여신인 것도 흥미롭다.¹⁰⁾

각별히 『실짓는 세 여인』은 실 짓는 일을 여성에게 부여된 저주의 노역, 병신 만드는 고역으로 그리고 있다. 게으른 처녀가 도무지 실 짓는 일을 안 하려 하자 어머니가 그녀를 마구 때린다. 지나던 왕비가 사유를 묻자, 당혹한 어머니가 둘러댄다. 가난해서 더 이상 아미를 살 돈이 없는데 딸이 하루 종일

- 7) 실짓기 모티브가 등장하지 않는 판본도 적지 않다. 「Holzfährlein Bonneführlein」, 「Kugler」, 「Winterkölbl」, 「Penelop」, 「Mistress Beautiful」, 「Doubleturk」, 「Whuppity Stoorie」.
- 8) 「뤼펠슈틸츠헨」, 「실 짓는 세 여인」처럼 실짓기가 중심 모티브를 구성하는 민담도 있고, 실짓기가 부수적 모티브로 등장하는 이야기도 많다. 「홀레부인 Frau Holle」의 여주인공은 손에 피가 베이도록 물레를 갖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홀레 부인의 나라로 가게 된다. 「열두 형제들 Die zwölf Brüder」, 「여섯마리 백조 Die sechs Schwäne」의 여주인공은 몇 년 동안 묵묵히 실을 갖고 옷을 짠으로써 오빠들을 구한다. 「가시장미 Dornröschen」의 여주인공은 실짓기를 시도하다 마법의 잠에 빠진다.
- 9) 과부가 길쌈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정체를 모르는 존재가 밤마다 찾아오고 과부는 아이를 갖게 된다.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길쌈하던 실을 남자 옷자락에 박아 둔다. 다음날 실을 따라가 보니 큰 지렁이가 있었다. 과부가 낳은 아들이 후백제의 시조 견훤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를 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찾아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길쌈하던 실이다.(한국구비문학선집) 「콩쥐팥쥐」에서도 콩쥐는 김매기와 베 짜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복을 받는다.(한국구전설화)
- 10) 북유럽신화의 노른 Norm 세 자매(과거를 관장하는 우르드르 Urd는 운명의 베를 갖고, 현재를 관장하는 베르단디 Verdandi는 베를 잘라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관장하는 스쿨드 Skuld는 베를 인간에게 배분한다). 그리스 신화의 모이라이 Moirai 세 자매(실 짓는 여신 클로토 Klotho, 할당하는 여신 라체시스 Lachesis, 되돌릴 수 없는 여신 아트로포스 Atropos).

실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여왕이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마가 가득 찬 방의 실을 다 자으면 머느리를 삼켰다고 말한다. 홀로 남겨진 처녀에게 세 여인이 나타나 실 짓는 일을 해주고, 대신 자기들을 결혼식에 초대하라고 한다. 결혼식에서 왕자가, 세 여인의 흥측한 모습 - 넓적한 발, 늘어진 입술, 커다란 엄지손가락- 에 놀라 연유를 묻자, 그들은 실을 많이 잤다가 그렇게 됐다고 답한다. 왕자는 자기 아내도 장차 그렇게 될까봐 다시는 물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녀는 실 짓는 고역에서 해방된다. 「타란돌로 Tarandolo」에서도 실 짓는 세 여인의 모티브가 등장한다.

이 같은 전승의 배경은 쉽게 설명된다. 직조 방에서 종일 실짓기를 하면서 여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부지런한 처녀에게 주어진 행운, 게으른 처녀의 비참한 말로,¹¹⁾ 혹은 게으른 처녀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 등등. 심약한 여자들은 어찌면 실을 잤다가 평발이 되거나 혹은 추녀가 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문명사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직조노동의 고역이 민담에서 흥측한 세 여인의 모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학자 프레이저(Frazer 2011, 328)는 원시문화권에서 초경을 시작한 여성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 년 이상 격리된 채 직조노동을 하다가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보티히하이머(Bottigheimer 1982, 145)는 그림형제가 KHM에서 실짓기를 좋게 묘사하려 하였지만, 사실상 실짓기 이야기들은 가사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III.2. 신부감의 자질로서 실짓기 능력

「룸펠슈틸츨헨」에서 왕은 처녀에게 방안에 가득 찬 짚을 금실로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두 차례나 위협한다. 다음날 방안에 가득한 금실을 보고 기뻐하고, 세 번째 날에는 금실을 자아내면 왕비로 삼겠다고 말한다. “비록 방앗간 집 딸이지만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자 여인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11) 예컨대 「홀레 부인」(KHM 14), 「홀레 부인의 연못 Frau Hollen Teich」(Grimm 1994, Nr. 4).

Wenn's auch eine Müllers ist, dachte er, eine reichere Frau finde ich in der ganzen Welt nicht.”(Grimm 1980, 323-324)라고 왕은 생각했다. 하찮은 지푸라기를 황금실로 자아내는 신묘한 능력 때문에 왕은 보잘 것 없는 가난한 농부의 딸을 왕비로 택한 것이다. 왕에게는 신부감의 경제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여기에서 실짓기 능력이 신부감의 주요 자질로 통했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민담이 적지 않다. 『물레, 북, 바늘 Spindel, Weberschiffchen und Nadel』(KHM 188)에서는 고아 소녀가 훌륭한 실짓기 솜씨로 왕자의 선택을 받는다. 『부지런한 하녀 Die Schickerlinge』(KHM 156)에서 신랑은 매력은 있지만 게으른 약혼녀를 버리고 옷감 잘 짜고 살림 잘하는 하녀를 신부로 선택한다. 가난한 집 처녀의 실 짓는 능력은 부유한 집 규수의 지참금과 맞먹는 경제 가치를 지닌 듯하다. 실 짓는 일이 여성의 본업으로 간주된 것은 프랑크 Sebastian Franck와 아그리콜라 Georg Agricola의 격언집(16세기)에도 나타난다.(Rumpf 1985, 59-72)

좋은 신랑감을 얻는 전제로 실짓기를 독려하는 민요도 있다.

실을 자아라, 실을 자아라, 내 귀여운 딸아,
 실을 자아라, 처녀야, 실을 자아라,
 그렇게 해서 연인을 차지해라.
 최고의 남자를 얻는 여성,
 그것은 최상의 실 짓는 처녀일지라.
 Spinn, spinn, meine liebe Tochter
 Spinnt, ihr Mädchen, spinnt,
 daß ihr einen Schatz gewinnt
 Die bekommt den besten Mann,
 die am besten spinnen kann.(Röhrich 1989, 38)

하지만 민속학자 뢰리히(Röhrich 1972/3, 578)는 실짓기 능력으로써 신부감의 자질을 시험하는 것은 농가에서나 있음직한 풍속이지 궁정사회의 관습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신부감이 근로 능력을 통해 결혼 적부를 시험받고 하층계급 신분의 벽을 넘는다든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청년이 신랑감으로서의 자질(용맹성, 지혜)을 미래의 장인 앞에서 증명해 보여줘야 했던 전통과 같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였든, 「롬펠슈틸츠헨」 유형의 이야기는 고달픈 일상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로, 또는 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참한 처녀의 행운을 보여 줌으로써 가사노동을 독려하는 당근으로 기능하였으리라 본다. 「롬펠슈틸츠헨」은 실을 자아 옷을 만들어 입던 생활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다. 직조방은 직물 생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실을 자으며 이야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문화적 공간이다. 19세기까지 실짓기와 이야기하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Benjamin 1968, 83-109) ‘이야기하기’가 길고 힘든 실 짓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직조방은 민중 민담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III.3. 재화의 상징으로서 황금 실

「롬펠슈틸츠헨」의 여주인공은 지푸라기를 황금실로 자아낸다는 아버지의 허풍 때문에 왕궁에 들여져 시험을 받고, 결국 아마를 황금실로 자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왕비가 된다. 황금은 재화의 상징이자 고귀함의 상징이다.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설화와 문헌, 예술작품에서 황금에 대한 숭상을 확인할 수 있다.¹²⁾ 미다스 Midas 왕의 신화는 대표적인 사례

12) ‘로렐라이 Lorelei’ 전설의 금발 미녀와 황금 빛,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금발은 미녀의 상징이 되고 있다. 「파르치발 Parzival」 전설에서 만찬 그릇은 모두 황금이며, 성배 또한 당연히 황금의 잔이다. 비잔틴 교회의 모자이크 장식을 바탕을 이루는 황금빛은 신의 무한성을 상징한다.(Lützel 1963, 237) 마르코 폴로 Marco Polo의 『동방견문록』에 묘사된 황금의 나라 - 황금지붕, 황금바닥으로 된 황금 나라 지팡그(일본)에 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을 부추겨서 일확천금의 꿈을 갖은 탐험가들이 동양 항로의 개척에 나서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같은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황금의 도시 El Dorado는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있다고 상상한

이다. KHM의 많은 민담에서도 황금에 대한 숭상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롬펠슈틸츠헨』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난쟁이가 실짓기의 대가로 목걸이와 반지 따위를 받아 낸 사실이다. 지푸라기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왜 그런 하찮은 물건을 챙겼을까? 앞뒤가 맞지 않은 설정이다. 그것은 그림형제가 여러 개의 판본을 조합하여 하나의 판본으로는 합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이해된다. 『롬펠슈틸츠헨』은 KHM의 민담들 중에서 자필원고인 초고(1810)와 초판(1812), 제 2판(1819), 최종판(1857)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민담 중의 하나이다.¹⁴⁾ 사실상 『롬펠슈틸츠헨』의 초고에서는 여주인공이 만지는 아마가 매번 황금 실이 되어 버린다. 여주인공에게는 그 ‘희귀한’ 능력이 저주였고 문제였다. 『롬펠슈틸츠헨』의 초판부터 최종판에 기록된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설정이다. 이 유형의 다른 판본에서도 황금 실 모티브가 등장하는 것은 별로 없다.¹⁵⁾

황금의 나라로서 신대륙 탐험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들은 중상주의 시대를 거쳐 근세 자본주의시대로 이어지는 황금만능 분위기, 황금에 대한 유럽인의 열망을 보여준다.

- 13) 「홀레 부인」에서 착한 소녀는 온몸이 금 조각으로 덮히는 상을 받는다. 「황금 새 Der goldene Vogel」, 「라퐁첼 Rapunzel」, 「거위치는 소녀 Die Gänsemagd」에서도 황금의 역할은 중요하다. 「라퐁첼」에서 여주인공의 금발은 왕자와 맺어주는 끈이 되고, 「거위치는 소녀」의 여주인공은 금발 때문에 그녀의 고귀한 출생을 증명하게 된다. 「가시장미 Dornröschen」에서는 부족한 황금접시 하나 때문에 공주가 죽음의 저주를 받는다.
- 14) KHM 초판은 당시 17세였던 헨리에테 빌트 Henriette Dorothea Wild의 구술에 따른 것이고, 제 2판은 하센플르크 Hassenpflug 집안 사람들이 구술한 세 가지 이야기의 합성이다. 초고와 초판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자 난쟁이가 커다란 수저를 타고 유유히 창밖으로 사라진다. 제 2판부터는 난쟁이가 돌로 찢어져 파멸하는 극적인 종말로 이야기가 마감된다. 제 2판 이후의 극적인 풍경은 리제테 빌트 Lisette Wild의 구술 내용에서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20세기에 채록된 판본들에서 적대자의 종말은 KHM 초고에서의 종말과 유사하다.(Röhrich 1999, 1171) KHM의 나중 판본들에 그려진 종말의 풍경은 최근의 패러디 동화에서 자주 차용되고 있다.(Fetscher 1974, 187-190)
- 15) 딸이 황금 실을 짰다고 말하는 판본은 「롬펠슈틸츠헨」, 「Kurzwegeli」, 「Kinkach Martinko」, 「진흙과 짚으로 황금실을 짰는 소녀」(일명 Titteli Ture)가 전부이다. 여타의 판본에서는 실짓기를 열심히 한다든가 하루에 여러 타래의 실을 짰다는 등등 보다 현실감 있는 자량이 이루어진다.

IV. 조력자로서 난쟁이

「룸펠슈틸츨헨」에서 여주인공의 실장기를 대신해 주는 조력자는 난쟁이이다. 이 유형 민담의 대다수 판본에서, 각별히 독일어권 전승에서 난쟁이가 등장한다.(Tegethoff 1923, 137 ff.) 브리튼 섬의 전승에서는 요정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¹⁶⁾ 이는 요정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켈트 전승의 전통으로 이해된다. 난쟁이 대신에, 거인(「릭텡-릭동 Ricdin-Ricdon」, 「피리 폴 Peerie Fool」), 정령(「트릴레빅 Trillevip」) 혹은 악마(「미너 마담 Mistress Beautiful」)가 등장하는 판본도 있다.

룸펠슈틸츨헨은 각별히 독일어권의 ‘난쟁이전설 Zwergsage’에 등장하는 난쟁이의 전형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설에서 난쟁이들은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든다. 또한 많은 전설에서 맥주 양조자로 등장한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직조를 돕는 것은 난쟁이전설의 전형적 모티브이다. 난쟁이들은 산 속 동굴에 사는 정령으로서, 음악과 춤을 즐긴다. 지하의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 보물 캐는 사람, 보물을 선물하는 사람, 숨씨 좋은 대장쟁이(「꼬마인간들 Die Wichtelmänner」), 아이를 바꿔치는 자, 생각 없이 물건을 빌리는 자, 가사와 부엌일을 도와주는 자, 양조 기술자도 있다. 자기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완악한 자들을 벌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예언자, 병을 고쳐주는 자,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쫓겨난 자들(Grimm 1994, Nr. 36)도 있다.(Röhrich 1989, 37) 룸펠슈틸츨헨도 전설 속의 난쟁이들처럼 실장기를 돕고, 빵을 굽고, 술을 빚는다. 그 같은 일상은 그가 숲속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으리, Heute back ich, morgen brau ich.”(Grimm 1980, 287) KHM의 여러 민담에 난쟁이가 등장한다.¹⁷⁾ 이들은 모

16) 「Titty Tod」, 「Whuppity Stoorie」, 「Penelop」, 「The Rival Kempers」

17) 「황금거위 Die goldene Gans」, 「숲속의 세 난쟁이 Die drei Männlein im Walde」, 「유리산의 일곱 까마귀 Die sieben Raben im Glasberg」.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광석을 캐는 일곱 난쟁이(「백설공주 Sneewitchen」)이며, 사악한 도굴꾼(「흰눈이와 빨간장미 Schneeweißchen und Rosenrot」)도 있다.

두 지하세계 사람들에 관한 민간신앙의 관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아이를 원한다는 점에서도 롬펠슈틸츠헨은 전설에 등장하는 난쟁이와 유사한 속성을 보여준다. 유럽 전승에는 악마나 악마같은 존재가 인간의 아이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흉측한 자기 새끼를 놓여놓는 이야기가 많다. ‘바뀌친 새끼 Wechselbalg’¹⁸⁾의 개념이 그것이다.¹⁹⁾ 『롬펠슈틸츠헨』 텍스트 속에서 그가 인간 아이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설에서도 난쟁이가 인간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롬펠슈틸츠헨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살아있는 것이 더 좋아. etwas Lebendes ist mir lieber als alle Schätze der Welt.”라고 말할 뿐이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그의 욕망은 숲속에서 불 주변을 돌며 부르는 그의 노래 속에서 보다 생생하게 표출된다.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으리.

모래는 왕비에게서 아이를 데려 오리니;

Heute back ich, morgen brau ich,

Übermorgen hol ich mir der Königin ihr Kind;(Grimm 1980, 287)

우리 행위와 어린애를 연결시키는 노래에서 식인의식 같은 섬뜩한 느낌이 전해진다. 뢰리히(Löhrich 1972/73, 588)는 이를 원시종족인 난쟁이들이 온전한 인간 아이를 통해 자기들의 생물학적 유전적 결함을 개량하고 이로써 후손을 잇고 종족의 지속적 유지를 도모한다는 민중적 믿음의 소산으로 해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나병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아이를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 혹은 병약한 노인이 어린 소녀를 품어 건강과 젊음을 회복하고 생기를 빼앗긴 소녀는 얼마 가지 않아 시들시들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난한 집 소녀가 대가 집에 팔려간 이야기 등등. 이들 이야기는 인간 아이를 탐하는 난쟁이들에 관한 전

18) 영어로는 Changeling.

19) 「바뀌친 새끼 Der Wechselbalg」(Grimm 1994, Nr. 82), 「물속의 바뀌친 새끼 Die Wechselbälge im Wasser」(Grimm 1994, Nr. 83)

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룸펠슈틸츠헨」 유형의 민담에서 여주인공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린애가 아니라 여주인공 자신, 즉 젊은 여인인 판본도 많다.²⁰⁾ 난쟁이가 젊은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난쟁이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난쟁이들은 인간 여인을 약탈하여 아내로 삼는다.²¹⁾ 「트릴레뵘」의 난쟁이는 실짓기를 돕는 대가로 자기 연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처녀가 이름을 맞힌 뒤에는 ‘실 짓는 세 여인’을 끌어들여 그녀의 행복한 결혼을 돕는다. 실짓기를 돕는 대가로 이름 맞히기만 요구할 뿐, 어린애나 여인에 대한 요구가 없는 판본도 많다.²²⁾

그밖에도 룸펠슈틸츠헨에게서는 소위 ‘악마전설 Teufelssage’에 등장하는 악마의 속성을 읽을 수 있다. 악마전설에서 악마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²³⁾ 외견상 도와주는 것 같지만 대가가 매우 비싸다. 그것은 악마전설의 기본 도식이다.

불 주위를 맴돌며 신나게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은 이 유형 민담의 대다수 판본에 등장한다. 그것은 다분히 ‘마녀의 연회 Hexensabbath’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룸펠슈틸츠헨」의 초판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밝혀진 난쟁이가 커다란 수저를 타고 창밖으로 날아간다. 그것은 발푸르기스 밤²⁴⁾에 마녀가 빗자루나 막대를 타고 브로켄 산을 오르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20) 「Double Tourk」, 「Holzführlein Bonneführlein」, 「Penelop」, 「Kugerl」, 「Tom Tit Tot」, 「Hoppetinken」, 「Purzinigele」, 「Kruzimugeli」, 「진흙과 짚으로 황금실을 짓는 처녀」(일명 ‘Tittel Ture」), 「Tarandando」

21) 「물의 정령 Der Wassermann」(Grimm 1994, Nr. 49)이 한 예이다. 또한 중세 영웅서사시 중에서 기사들이 출정하여 난쟁이들에게 약탈당한 여인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22) 「Titty Tod」, 「Ricdin-Ricdon」, 「Die dire Spinnerinnen」, 「Mistress Beautiful」, 「Nagendümer」, 「Kugerl」, 「Winterköbl」, 「Krzimugeli」, 「Duffy and Devil」(일명 Terrytop), 「Peerie Fool」, 「Gwarwyn-a-throat」.

23) 예컨대 그 사람의 영혼이나 두 눈, 혹은 해, 달, 별 등을 요구한다.

24) Walpurgisnacht는 유럽 중부와 북부에서 4월 30일이나 5월 1일에 널리 행하는 봄의 축제로 전형적 기념행사는 모닥불 앞에서의 춤이다. 발푸르기스 밤의 명칭은 성 발부르가 Saint Walburga(710-777/9)에서 유래하였다. 독일에서의 발푸르기스 밤은 마녀들이 브로켄 산에 빗자루를 타고 올라가 큰 축하 행사를 열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밤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묘사되어 있다.

칸(Kahn 1966/67, 167)은 민간설화에서 등장하는 룬펠슈틸츠헨과 같은 난쟁이를 몰락한 원시종족의 잔영으로 풀이한다. 한때 강력한 대집단이었지만 나중에 골짜기 뒤로 물러나 살게 된 원시종족 - 그들은 괴물도, 악령도 아니고, 다만 원시부족의 하나인데 후일 악령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플레세의 조용한 종족 Das stille Volk zu Plesse』(Grimm 1994, Nr 30), 『다리 건너 사라진 난쟁이족 Der Abzug des Zwergvolks über die Brücke』(Grimm 1994, Nr. 153)은 이같은 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전설로 보인다.

『룬펠슈틸츠헨』 유형의 이야기는 민담보다는 전설에서 많은 판본이 채록되어 있다. 뤼티(Lüthi 1961, 53-54)는 『룬펠슈틸츠헨』을 민담과 전설의 혼합 형태로 보았고, 랑케(Ranke 1957, 96)는 ‘AT 500’ 유형의 이야기들을 전설과 민담으로 분류하고, 지하세계에 사는 난쟁이가 인간 여인을 아내로 갖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들을 『룬펠슈틸츠헨』의 선취적 형태로 보았다. 선취적 형태인지, 혹은 하위갈래의 이야기인지, 혹은 두 가지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이름의 의미와 기능

룬펠슈틸츠헨은 실잣기의 대가로 왕비의 아이를 요구한다. 하지만 사흘 안에 자기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이 데려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실잣기 모티프가 등장하지 않는 판본은 많으나 이름을 건 수수께끼 게임은 이 유형의 모든 판본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름은 이 유형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로 주목된다.

V.1. 이름의 힘

‘이름 맞히기’ 유형의 설화에 대해,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지배

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속신의 잔영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Clodd 1889, 165) 이름의 힘에 대한 옛사람의 믿음, 즉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의 본질을 알고, 그의 힘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를 지배할 수 있다는 원시적 사고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다.

독일어권의 몇몇 전설은 제이콥스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티롤 Tirol 지방(오스트리아)의 한 전설에서는 바람난 처녀가 사냥꾼 총각과 정분이 났는데, 총각이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제가 처녀를 악마의 손아귀에서 풀어주기 위해 그녀에게 총각의 이름을 알아내라고 한다. 악마가 교묘하게 이름을 감추지만 두 소년이 밤에 울타리 뒤에 숨어 악마의 노래를 엿듣고 그의 이름이 켈버푸스 Kälberfuss임을 알아낸다. 사제가 악마를 불러내서 처녀를 꼬드긴 것을 꾸짖자, 악마는 처녀가 자기를 유혹한 거라고 반박하지만 결국은 쫓겨난다.(Depinny 1982, 248) 또 다른 오스트리아 전설에서는 살츠카머гут Salzkammergut 지방의 농촌 머슴이 돈 때문에 악마와 계약을 맺는다. 모월모일까지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의 소유물이 되기로 약속한다. 마지막 날 사흘 전에 친구의 조언에 따라 인근 산에서 악마가 부르는 요들송을 엿듣고 그의 이름이 슈피츠바르틀 Spizbartl임을 알아내고 구원을 받는다.(Depiny 1982, 257) 두 이야기는 악마전설에 속한다. ‘AT 500’ 유형의 독일 남부지역 판본들은 대체로 이와 같으며, 소수이지만 독일 북부의 저지 독일어 판본에도 유사한 전설이 있다 이들 이야기에서는 실짓기나 직조를 돕는 모티브가 없다. 이야기는 악령의 추방으로 종결된다. 특이한 이름, 소멸되고 없어진 이름이 악마전설에서 흔히 사용된다.(Peuckert 1965, 139-155)

민담에서와는 달리 전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명이 언급된다. 이것은 곧 민담과 구분되는 전설의 특성이다. 전설에서 악을 격퇴시키는 것은 사제이다. 통상적으로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철저히 감추려 하기 때문에 가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녀재판의 기록에 따르면, 악마가 본명을 감추고 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녀도 악마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²⁵⁾

25) 로마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엑소시즘 Exorcism’을 위하여 악마를 부를 때 특별한 형식의 구절(Dicas mihi nomen tuum)을 사용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써 악마 추방의 한 부

이름 맞추기 모티브를 지닌 또 다른 전설을 살펴보겠다. 북부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전승에서는 거인이 대 건물, 성, 혹은 다리의 축성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 달, 별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의 두 눈을 요구한다. 거인의 요구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다. 룬드 Lund(핀란드)에 성당 건축을 대신해 준 거인 핀 Finn은 건축기사의 몸과 영혼을 요구한다. 건축기사는 거인의 아내가 부른 자장가를 듣고 거인의 이름을 알아낸다. 이름이 밝혀진 거인은 시합에 진 것을 분통해 한다(Boberg 1955, 1-25; Bolte/Polívka Bd, 1, 495).²⁶⁾ 이 북구의 거인설화에서는 이름에 담긴 비밀스런 힘보다는 비밀스런 이름을 건 내기시합 자체가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름의 모티브는 신화에서도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 Odysseus는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 Polyphemos를 장님으로 만들고 탈출하면서 자기 이름을 “Outis”(아무도 아님)이라고 말함으로써 괴물들의 보복을 피한다. 게르만 신화에서 지크프리트 Siegfried는 죽어가는 난쟁이 파프니르 Fafnir에게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을 “Göfugt Dyr”²⁷⁾라고 소개한다.(Leyen 1964, 53-54) 이름이 이름 주인의 본질이라면, 이름의 노출은 위험할 수 있다. 적의 이름을 아는 것은 적을 통제하고 적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적의 영혼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적들을 혼란시키고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혹은 적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분을 실행하는 것이 된다.

26) 이 전설의 모태설화는 북구 설화집 『에다 Edda』와 그리스 신화에서 발견된다. 스노리 Snorri Sturluson의 『에다』(13C)에서는 토르 Thor 신의 부재 중에 산의 거인 베리시 Berrisi가 나타나 신들에게 내기를 건다. 아스가르드 Asgard(북유럽신화의 천상의 신들의 집)를 지어주겠노라고. 그것도 여름 첫날이 오기 전에 완성해 해 줄 테니, 대가로 프레이야 여신과 해와 달을 넘겨주라고. 신들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왕궁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건을 수락한다. 거인의 말 수완달파리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의 둥근 돌을 깔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신들은 몰랐던 것이다. 여름이 시작되기 사흘 전, 완성을 눈앞에 둔 순간 로키가 암말로 변해서 거인의 숫발을 유혹하여 작업을 지연시킨다. (로키는 나중 오딘 신에게 발이 여덟 개 달린 말을 낳아준다) 거인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프레이야 여신, 해, 달은 구원받고 토르 신이 돌아와 거인을 죽인다. 이 같은 이야기가 후일 수백 개의 민간전승에 등장하는데, 건축가가 거인이 아니라 악마인 경우가 많다.

27) ‘당당한 사슴 Stolzer Hirsch’으로 번역됨.

을 비밀로 하거나 엉뚱한 이름을 대기도 한다. 이름을 알면 이름 주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에게는 자기 이름을 감춘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인디오 사회에서는 자기 사진이 찍히면 영혼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남아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사진 속에 자신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금기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성인(成人)이나 존속(尊屬, 선현(先賢), 성자(聖子), 왕과 같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자 자(字)나 호(號), 시호(諡號), 택호(宅號) 등의 간접적 칭호가 사용됐다. 자와 호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다, 성인(成人)의 이름이나 자(字)를 아랫사람이 부를 수가 없는 경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칭호로 ‘정승택(政丞宅)’, ‘판서택(判書宅)’과 같은 택호(宅號)가 사용됐다. 존속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수신자로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 밑에 본제입납(本第入納) 또는 본가입납(本家入納)이라고 써 왔다. 자나 호가 없는 여자의 경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金)실이’, ‘박(朴)실이’, ‘서울택’ ‘아무개 어멈’ 등으로 부름으로써 직접 이름 부르는 것을 피해 왔다.

라이엔은 이름에 대한 금기가 태고 적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룸펠슈틸츨헨」의 형성 시기를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⁸⁾ 하지만 그 반대로 「룸펠슈틸츨헨」의 형성 시기를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룸펠슈틸츨헨」은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된 이야기가 아니며, 유럽 전역에 두루 유포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담학자들은 전승지역이 좁은 민담의 형성 시기를 오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론일 뿐, 결코 절대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룸펠슈틸츨헨」 유형의 민담에서 조력자의 이름은 다양하다. 각별히 게르만어권에 다양한 이름들이 채록되어 있다. 이야기의 핵심적 요소가 전대미문

28) 그는 「룸펠슈틸츨헨」 민담을 KHM의 「두꺼비 이야기 Märchen von der Unke」 다음으로 오래된 민담으로 규정하였다. 「두꺼비 이야기」는 두꺼비를 아이의 수호신으로 믿는 태고적 신앙의 잔영이라는 점에서 가장 오래된 민담으로 간주하였다.(Leyen 1964, 66)

의 이름, 결코 알아맞힐 수 없는 이름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수많은 특이한 이름들이 등장한다. 칸(Kahn 1966/67, 167)은 이들 이름을 사멸한 종족의 언어, 따라서 소멸한 언어의 잔영으로 보았다.

V.2. ‘이름 맞히기’의 오락적 기능

『룸펠슈틸츠헨』에 나오는 이름 게임은 전적으로 ‘이름의 힘’, ‘이름의 금기’와 관련된 관념의 소산인가? 몇 개의 판본을 일람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릭덴-릭둥』, 『리카베르-리카봉 Ricabert-Ricabon』, 『쿠르치무겔리 Kruzimugeli』에서 여주공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름 맞히기’가 아니라 ‘이름 기억하기’이다. 악마가 자기 이름을 미리 알려 주고 석 달 후(『릭덴-릭둥』), 혹은 일 년 후(『리카베르-리카봉』) 혹은 삼 년 후에(『쿠르치무겔리』) 자기 이름을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 여주인공은 쉽게 생각하고 제안을 수용하나 결국 이름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름 맞히기가 아니라 이름 기억하기라면 ‘이름의 비밀’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듯하다. ‘뒤바뀐 새끼 Wechselbalg’ 유형의 전설에서는 악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이를 알아 맞혀야 한다.²⁹⁾

이름 수수께끼는 오락적 놀이로서 유입된 모티브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Rumpelstilzskin’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최초의 문헌은 피샤르트 Johann Fischart의 『Geschichtklitterung or Gargantua』(1575)인데, 여기에서 “Rumpele stilt oder der Poppart”가 아이들 놀이에 대한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다.(Rausch 1908, 22)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인지 설명은 없다.³⁰⁾ 이

29) 이 또한 악마 자신의 노래를 통해 탄로된다.(Piaschewski 1935, 98)

30) 『그림사전 Grimms Wörterbuch』에서는 ‘Rumpelstilzchen’을 ‘덜컹거리다 rumpeln’와 ‘작은 막대기 Stelzchen’의 결합형으로 보고, “시끄럽게 소동부리며 출몰하는 가택정령 코볼트 lärmender, spukender Kobold”라고 풀이하고 있다. 독일 전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동쟁이정령 Rumpelgeist’으로서 ‘Poltergeist’, ‘Goblin’, ‘Pophart’(Poppart), ‘Mummarts’, ‘Boggarts’, ‘Hobs’ 와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이다.

룸 수수께끼를 오락적 놀이 기능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이들 이름이 모두 일상에서 찾기 어려운 특이한 명칭, 우스꽝스러운 음향과 음색, 괴상한 조어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각주 3'의 이름들 참조) 세 번째 근거로는 난쟁이가 약속한 대로 실을 자아 주었으니 아이를 요구하면 되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는 이름 맞히기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패배를 자초하고 있는 점이다.³¹⁾ 네 번째 근거는 이름 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폭로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의 모든 판본에서 난쟁이 내지는 요괴가 불길을 뿜으며 춤추며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한다.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AT 500' 유형의 대표적 특징이다.

아, 신나는구나, 그 누구도 이걸 모르니.
내 이름이 룸펠슈틸츠헨이라는 것을.
Ach, wie gut, dass niemand weiß,
dass ich Rumpelstilzchen heiß.(Grimm 1980, 287)

경망스런 요물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미리 좋아하다가 산통을 깨는 상황이 라니,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한 장면인가? “Ach, wie gut, dass niemand weiß, dass ich Rumpelstilzchen heiß.”는 오늘날 독일에서 자기 비밀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다섯 번째 근거는 여주인공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게 된 후에도 곧바로 이름을 대지 않고 짐짓 두 번씩이나 엉뚱한 이름을 대며 난쟁이를 희롱한 후, 마지막에야 진짜 이름을 대는 상황이다.

그 직후 난쟁이가 찾아와 물었다. “자, 왕비님, 제 이름이 뭐죠?”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하인즈인가요?” “아니랍니다.” “쿤츠인가요?” “아니랍니다.” “혹시 룸펠 슈틸츠헨인가요?” 난쟁이는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말해 준 거야, 악마가 말해

31)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칼라프 Kalaf 왕자가 공주의 수수께끼를 다 풀고 사실상 게임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자기 이름을 알아맞히면 승자의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준 거야’

als bald hernach das Männlein hereintrat und fragte: “Nun, Frau Königin, wie heiß ich?”, fragte sie erst: “Heißest du Heinz?” “Nein.” “Heißest du Kunz?” “Nein.” “Heißt du etwa Rumpelstilzchen?” “Das hat dir der Teufel gesagt, das hat dir der Teufel gesagt”, schrie das Männlein.(Grimm 1980, 287-288)

승리의 기쁨에 잔뜩 취하여 하늘로 날듯하던 요괴가 일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얼마나 통쾌한 전복인가. 짐짓 두 번이나 틀린 이름을 댄으로써 요괴를 잔뜩 흥분시킨 후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다수의 판본에 등장한다.³²⁾

VI. 결 론

『룸펠슈틸트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천직이며 신부감의 기본자질이었던 실장기를 통해 옛 시대 여성의 노역과 고달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동시에 어느 날 마법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 단 순간에 그 모든 고역에서 해방되는 소망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인의 일생을 건져 줄 그런 커다란 행운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주어진다면, 무슨 이야기 거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직조방의 처녀들은 이름 찾기 게임을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이름의 힘에 대한 옛사람의 믿음을 소담(笑談)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룸펠슈틸트헨』은 전래민담에서 아동교육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적절하지 않다.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방앗간 주인은 딸이 황금 실을 찾는다고 왕을 속이고, 여주인공은 남편 왕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난쟁이의 일을 남편에게 고

32) 『Tom Tit Tot』, 『Ricabert-Ricabon』, 『Zwerg Holzrührlein Bonneführlein』, 『Kugerl』, 『Purzinigele』, 『Tarandando』, 『Kruzimugeli』, 『Duffy and the Devil』, 『Peerie Fool』 등등.

백하지 않는다. 왕은 황금 욕 때문에 방앗간 딸을 왕비로 삼는다. 그가 후일 또다시 황금 실을 자으라는 명을 왕비에게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왕비는 난쟁이와의 약속을 빠져나갈 궁리로 바쁘다. 무서운 운명의 순간에도 자신을 해방시켜 줄 난쟁이의 이름을 대지 않고 다른 이름을 대면서 난쟁이를 우롱하기도 한다. 결국 난쟁이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은 룸펠슈틸츨헨 뿐이다. 그는 처음부터 일의 대가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 맞히는 게임을 허락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럼에도 그는, 적어도 그림형제의 텍스트에서는, 가랑이가 찢어져 죽는 악마로 그려지고 있다. 「하멜른의 쥐잡이」 전설에서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쥐잡이 청년이 악마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로 이것이 전래민담의 문법이다. 약자를 등장시켜 삶의 성취과정을 그리되 성취된 결말은 대부분 기대 이상의 행운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의 행운은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 민중의 잠재된 욕구의 일방적 투사이다. 억압되어 있는 민중의 잠재된 욕구를 자유롭게 성취시킴으로써 민중의 삶의 의식을 자유롭게 펼쳐주는 것이 전래민담이 지향하는 목표이며 전래민담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이런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은 민중의 전승을 보장하는 힘이다.

■ 참고문헌

1차 문헌

- Briggs, Katherine(2003): A Dictionary of British Folk Tales in the English Language, Part 1, Vol. 1: Folk Narrativ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Tom Tit Tot’, 534-541.
- Brüder Grimm(1975): Die älteste Märchensammlung der Brüder Grimm. Synopse der handschriftlichen Urfassung von 1810 und der Erstdrucke von 1812, hg. v. Heinz Rölleke, Cologny-Geneve.
- Brüder Grimm(1980): Kinder- und Hausmärchen. Ausgabe letzter Hand 1957, hg. v. Heinz Rölleke, 3 Bde. Stuttgart: Reclam: ‘Nr. 14 Die drei Spinnerinnen’, 97-99 & ‘Nr. 55 Rumpelstilzchen’, 285-288.
- Brüder Grimm(1982): Kinder- und Hausmärchen, 2 Bde. nach d. 2. Aufl. von 1819, hg. v. Heinz Rölleke, München: Diederichs.
- Brüder Grimm(1994): Deutsche Sagen, Stuttgart: Reclam.
- L’Héritier, Marie-Jeanne(2001): Ricdin-Ricdon, in: Zipes, Jack (Ed.): The Great Fairy Tale Tradition: From Straparola and Basile to the Brothers Grimm, W. W. Norton & Company, 588-624.
- Zinngerle, Ignaz v.(1891): Sagen aus Tirol, Innsbruck, 2. Auf. 381f. Nr. 677. <http://www.pitt.edu/~dash/type0500.html#doubleturk> (2014)

2차 문헌

- 임석재 편(1989): 한국구전 설화, 1권: 평안북도 편, 평민사.
- 한국구비문학회 편(1981): 한국구비문학선집, 일조각.
- Aarne, Antti/ Thompson, Stith(1961): The Types of the Folktale.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FFC 184,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 Benjamin, Walter(1968): The Storyteller: Reflections on the Work of Nikolai Leskov, in: Illuminations,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83-109.
- Boberg, Inger M.(1955): Baumeistersagen, FFC 151, Helsinki: Suomalainen

- Tiedeakademia, 13 sq.
- Bolte, Johannes/ Polívka, Georg(1913): Rumpelstilzchen, in: dies.: Anmerkungen zu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Bd. 1, Liepzig, 490-498.
- Bottigheimer, Ruth B.(1982): Tale Spinners: Submerged Voices in Grimms' Fairy Tales, in: New German Critique 27, 141-150.
- Clodd, Edward(1889): Tom Tit Tot. An essay of savage philosophy, London.
- Depiny, Adalbert(1932): Oberösterreichisches Sagenbuch, Linz, 257, Nr. 205.
- Fetscher, Iring(1972): Wer hat Dornröschen wach geküßt? Das Märchen-Verwirrbuch, Frankfurt a.M.
- Frazer, James George(2011): 황금가지, 이용대 역, 한겨레출판사.
- Kahn, Otto(1966/67): Rumpelstiz hat wirklich gelebt. Rheinisches Jahrbuch für Volkskunde 17/18, 143-184.
- Leyen, Friedrich von der(1933): Volkstum und Dichtung, Jena.
- Leyen, Friedrich von der(1964): Das deutsche Märchen und die Brüder Grimm, Düsseldorf: Kleln.
- Lüthi, Max(1961): Volksmärchen und Volkssage. Zwei Grundformen erzählender Dichtung, Bern u. München.
- Lützel, Heinrich(1963): Führer zur Kunst, Freiburg.
- Peuckert, Will-Erich(1965): Sagen, Gebut und Antwort der mythischen Welt, Berlin, 139-155, Kap. 'Ausgelohnt'.
- Piaschewski, Gisela(1935): Der Wechselbalg. Ein Beitrag zum Aberglauben der nordeuropäischen Völker, Diss. Breslau.
- Ranke, Kurt(1957): Schleswig-Holsteinische Volksmärchen, Bd. 2, Kiel.
- Rausch, Heinrich A.(1908): Das Spielverzeichnis im 25. Kapitel von Fischarts 『Geschichtkitterung』 (Gargantua). Diss, Strassburg.
- Röhrich, Lutz(1951): Der Dämon und sein Name. Paul und Braunes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73, 456-468.
- Röhrich, Lutz(1972/73): Rumpelstilzchen. Vom Methodenpluralismus in der Erzählforschung, in: Schweizerisches Archiv für Volkskunde, Basel

68/69, 567-596.

Röhrich, Lutz(1989): Das Bild der Frau im Märchen und im Volkslied, in: Harder, Hans-Bern u.a. (Hg.): Jakob und Wilhelm Grimm zu Ehren, Marburg, 35-62.

Röhrich, Lutz(1991): Tom Tit Tot - Ricdin-Ricdon - Rumpelstilzchen, in: Graichen, G./ Hillrichs, H.H. (Ed.): Und weil sie nicht gestorben sind. Hamburg, 141-145.

Röhrich, Lutz(1999): Name des Unholds (AaTh 500), in: Ranke, Kurt (Hg.): Enzklopädie des Märchen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Bd. 9, 1164-1175.

Rumpf, Marianne(1985): Spinnerinnen und Spinnen, in: Früh, Sigfrid/ Wehse, Rainer (Hg.): Die Frau im Märchen, Kassel, 59-72.

Tegethoff, Ernst(1923): Die Dämonen i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Märchen, Schweizer. Archiv für Volkskunde 24, 137-166.

Zusammenfassung

Überlegungen zum Märchen *Rumpelstilzchen* der Brüder Grimm

Son, Eunju (Mokwon Uni)

Die vorliegende Arbeit hat zum Ziel, das Märchen *Rumpelstilzchen* der Brüder Grimm in seinen Hauptmotiven und ihrem kulturhistorischen Hintergrund zu untersuchen. Dabei wird der Text aus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mit den anderen Fassungen analytisch verglichen, denn ein Märchen kann niemals auf der Grundlage einer einzelnen Fassung gedeutet werden.

Der Inhalt des Märchens *Rumpelstilzchen* ist folgender: Ein Mann prahlt vor dem König, seine Tochter könne Stroh zu Gold spinnen. Der König stellt sie unter Todesdrohung auf die Probe. Ein geheimnisvolles Männchen hilft ihr, die unlösbar scheinende Aufgabe zu erfüllen, beim dritten Mal unter der Bedingung, dass ihr erstgeborenes Kind ihm gehören soll, falls sie seinen Namen nicht errät. Der König heiratet sie nach Erfüllung der Aufgabe; sie gebiert ihm ein Kind. Durch Zufall wird der Name des Helfers in Erfahrung gebracht.

Es geht hier um die Einzelmotive: Spinnen als Heiratsprobe, Stroh zu Gold spinnen, der übernatürliche Spinnhelfer, das Erraten des Namens. Im Zentrum des Märchens steht die Suche nach dem Namen des übernatürlichen Spinnhelfers. Er heißt Rumpelstilzchen bei den Brüdern Grimm, in weiteren regionalen Varianten u.a. Tom Tit Tot in England, oder Ricdin-Ricdon in Frankreich. Neben dem Geheimnis um den Namen läßt sich natürlich auch ein gewisser Spieltrieb der Sprache erkennen, eine Freude an Klanghäufungen,

onomatopoetischen Lautmalereien usw.

주제어: 민담, 그림형제, 룬펠슈틸츠헨, 이름의 수수께끼

Schlüsselbegriffe: Märchen, Brüder Grimm, Rumpelstilzchen,
Namenrätsel

필자 E-Mail: soneunj@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10. 19, 논문심사일: 2014. 11. 16, 게재확정일: 2014. 11. 24.